마음의 본디바탕과 선악(善惡)의 문제

구연상(숙명여대)

1. 마음의 '빗-그림(비유, 比喩, 빗대어 깨우쳐 보이는 그림)-들'

㉠ **마음**은 '보다 나은 삶'을 살아갈(갈고닦음) 줄 아는(슬기) '밑-바탕'이다.

> 마음은 참슬기를 얻기 위해서는 '보다 나은 삶'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, 차분히, 넓고 깊고 높게, 즉 두루 살필 줄 알아야 한다.(60.3)

> 두루 살필수록 마음은 더욱 맑아진다. '두루 살핌'이나 '올바른 살핌'은 참슬기를 얻기 위한 전제이다.(61.2) 살핌은 '어떠한 삶'이 더 나은 것인지 그 갈피와 갈래를 갈라 보는 일이자, 그 일들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이다.

> 살피는 주체가 곧 마음이다.

> **맑힘**은 마음이 '두루 살핌'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자 그 결과이다.( )

㉡ 거울 비유(62-69)

> 마음이 맑다는 것은 마음이 그 살펴야 할 것을 잘 살핀다는 것을 뜻하고, 마음이 흐리다는 것은 '보다 나은 것'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.( )

> 이러한 '맑은 마음'을 불교에서는 "지혜"로 표현하고, 이 "지혜"를 흔히 거울에 비유한다.(63.1)

> 지혜(智慧)의 낱말 뜻 설명(63.2-64.2)

> 불교에서 마음을 비유하는 '거울의 종류'(64.2-68.2)

- 은감불원(殷鑑不遠): 『시경(詩經)』 탕편(蕩篇).(64.3)

⇒ **역사서(歷史書)**는 후대가 교훈을 삼아야 할 거울, 즉 "사감(史鑑)"이나 "통감(通鑑)"으로 불렸고, 귀감(龜鑑)은 어떤 일을 본보기의 거울로 삼아 거기에 스스로를 비춰 본다는 것

을 뜻하며, "경고(鏡考)"는 지난 일을 거울삼아 생각하고 바로잡는다는 뜻이며, 또 경계(鏡戒)나 감계(鑑戒)는 지난 일을 빌어 법이나 계율(戒律)로 삼는다는 것을 한다. 거울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을 일러주는 스승과 같다.

- **거울에 비친 진리**: 진리는 거울 속 모습에서 찾을 수 없고 그 모습의 실체에서 찾아야 한다. 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. '텅 빈 진리'는 거울이 깨지면서 사라져버리는 '거울 모습'과 같다. 용수(龍樹)의 『대지도론(大智度論)』(권6)(65.2)

- 나머지는 책을 살펴볼 것! 『불지경(佛地經)』 "큰 둥근 거울 슬기(대원경지, 大圓鏡智)", 『대승기신론(大乘起信論)』 (여실공경(如實空鏡), 즉 있는 그대로의 빈 거울 / 인훈습경(因熏習鏡), 원리를 익히도록 하는 거울 / 법출리경(法出離鏡), 진리를 떠난 거울 / 연훈습경(緣熏習鏡), 연기설을 가르치는 거울)

> 무명(無明): 마음의 밝지 않음 ⇒ 마음의 맑지 않음. '마음 거울'이 기쁨, 성냄, 슬픔, 즐거움 등 스스로 불러일으킨 감정 때문에 갖가지 빛깔로 물들면, 거기에 비치는 것들은 저절로 본디의 모습을 잃게 마련이다.(69.1)

> 무엇이 마음을 더럽히거나 흐리게 하는가? 마음에 들어온 것이 마음을 흐린다. ⇒ 맑힘에서의 핵심 주제가 된다.

㉢ 거울의 노릇: 비침

㉣ 물의 노릇: 비침, 다음, 떨림, 울림

> 물은 그릇(땅)에 담겨야 한다. 물은 그릇의 모양을 닮기도 하지만, 그 그릇 모양은 물 자체의 무게와 흐름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한다. 물로서의 마음은 그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갖는다. 마음은 빚어지는 것이다. 마음을 빚는 데는 몸과 말(기분, 이해) 그리고 세계(문화, 자연)가 함께한다.

> 물은 거울보다는 못하지만 거울의 노릇을 한다. 물의 거울놀이에서 놀라운 점은 저마다의 물방울이 그때마다 '서로를 되비추는 하나'가 되려 한다는 점이다. 보기를 들어, 하늘을 비추는 물방울 거울은 땅을 비추는 그것에 대해 '되비침-거울'이 되고, 그 거꾸로 또한 마찬가지이다. 이는 "의미는 관계로부터 생겨난다."라는 내세움말이 뜻하는 바와 같다. 마음 속에 '들어있는 것들'은 서로를 되비쳐 줌으로써 거울모습과 본디모습 사이에 빚어지는 '모

습의 차이'를 줄어나갈 수 있다. 이때 본디모습 또한 언제나 '비친 모습'이지 '그 자체의 모습'은 아니다. 마음은 자신 안에 비친 모습을 이러한 다름을 감안해 본다.

> '통 속의 물(마음)'은 바깥에로 통하는 통(筒)과 그 안을 도는 관(管)이 있다. 이 '통'과 '관'은 신경처럼 온몸에 퍼져 있으면서 마음과 몸 그리고 그 바깥을 서로 이어준다. 마음은 통과 관으로 들어오는 떨림에 의해 갖은 물결이 인다. 마음의 떨림은 공포와 같은 기분에 의해 잘 드러난다. 마음의 '떨림-결'은 바깥으로부터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고,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다. 마음의 떨림이 쉽고 부드럽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 '마음결이 곱다'고 말한다.

> 마음이 그 자신을 떨게 만드는 '떨림'에 의해 흔들리는(감동, 감명, 감정) 것이 곧 울림이다. 울림은 떨림의 한 가지로서 어떤 것에서 떨어져 나온 움직임이 다른 것에게로 전달되어 그 둘이 함께 떠는 것을 말한다. 울림은 '함께-떨림'으로서 서로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물을 통해 서로 '하나'가 되는 존재방식을 말한다. 마음에 보이는 모든 것(모습, 빛깔, 움직임)은 이러한 울림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서 언제나 '얼-보임'이고, 마음에 들리거나(소리) 닿거나(다솜) 맡아지는(냄새) 모든 것 또한 '어우러짐'의 성격을 갖는다. 이러한 어우름(공통감각, 판단)은 마음의 울림의 바탕이다. 이는 곧 마음이 '들온 것 모두'를 언제나 체계화하려는 경향(일관성, 정합성, 진리성)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.

> 그런데 마음은 들온 것을 한데 떨기(무더기)로 묶는 버릇을 갖기 때문에 거꾸로 그 묶인 뭇(묶음, 종합)들을 갈래갈래 나눌 수도 있다. '한데-묶기'와 '갈래-나누기'는 마음 안에서 늘 일어나는 '두레-일'이다.[1] 두레는 여럿이 함께 물을 퍼붓기 위해 만든 도구로서 어떤 일을 서로 돌아가며 함께 한다는 뜻을 갖는다. '두레-마음'은 묶고자 하는 마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그 둘의 공동 목표, 즉 올바른 앎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로 함께 나아가도록 해준다. 마음은 들어온 모든 것을 '묶-나누기'로써 서로 한데 묶어 나누기도 하고, 또 동시에 서로 따로 나누어 묶기도 하면서 앎을 일구어낸다. 마음은 '묶-나누기'를 위해 묶인 것들과 나뉜 것들을 끊임없이 그 반대 가능성에서 '두루-살핀다.'

---

[1] "두레"의 말뿌리는 신라시대 향가 가운데<도솔가>에 나오는 "두레놀애"나 "도리놀애"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> 그런데 마음의 울림(함께 떨림)이 맑을수록 '들어온 것'들은 깨끗하게 받아들여지고, 흐릴수록 뒤섞여(더럽게, 흐리멍텅) 받아들여진다. 잘못된 선입견들은 울림을 가로막을 뿐이고, 모름의 깊은 늪은 울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. 울림의 맑기는 '들-자리'로서의 마음의 맑기에 달렸다. 마음이 맑다는 것은 '빈 칠판'과 같은 것을 뜻하지 않고, 어떤 것을 그것으로 제대로 알아볼 줄 안다는 것을 말한다. 즉 맑은 마음은 모든 악기가 저마다의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조율되어 있는 상태에 비유될 수 있다. 조율(調律)은 다스름이다. 다스름은 국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음률(音律)을 고르게 맞추기 위하여 적당히 짧은 곡조를 연주하는 일이다. 마음 맑히기는 모든 것이 참답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음이 다스름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.

> 마음 맑히기는 이런 의미에서 두루 살피기이다.

2. 마음의 본디 바탕은 '두루 살핌'이다.

㉠ 마음은 '**삶의 자리지기(삶을 살아나가는 것)**'이다.(70.2)

- **사람의 마음**은 그 몸이 자라는 것에 따라 함께 크기도 하고, 더 나아가 몸이 다 자란 뒤에도 끝없이 '깊-넓혀질 수' 있다. 마음은 상처를 받거나 치유될 수도,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도 있다. (70.2-71.1)

㉡ 마음의 본질은 "**두루 살핌**"에 있다.

- "두루 살핌": 곳곳마다 때마다 샅샅이 살핌.(72.3)

> 두루 살피는 눈은 '**해석학적 눈**'이다.(73.3)

보기) 길 위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. ⇒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알아본 순간 그것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볼 수는 없다.(73.3)

㉢ 마음은 빈 그릇이 아니라 '갈무리 창고(倉庫)'와 같다.

- 마음은 살펴본 모든 것을 그 갈래를 나누고 갈피를 잡아 **갈무리**해 들인다. 마음은 창고와 같다.(74.1)

㉣ 마음은 **부리고 다스리는 덜미쇠**[2]이다.

---

[2] 덜미-쇠 / [민속] 꼭두각시놀음에서, 으뜸 조종자를 이르는 말. 비슷한 말 : 대잡이.

- **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.**(76.2)

> 우리가 '보다 나은 것'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, 우리는 무엇보다 '살피는 마음 자체'를 맑혀야 한다. '마음 맑히기'는 누군가에 의해 한 번에 창작되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되풀이되어야 하는 일하기(노동)이다.(77.1)

㉤ 마음은 **사무치는 넘나들이**이다.

> 사무침의 뜻: "나랏 말 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디 아니 ."(세종어제훈민정음언해) 사무침은 말이나 글을 통해 서로의 뜻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느낌이나 기분과 같은 것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식의 소통을 말한다.[3]

- 사무침의 반대는 먹먹함이다.

> 마음 맑히기는 마음의 본질뿐 아니라 사물의 본질까지 꿰뚫어볼 수 있게 해 준다.( )

-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보기(77.2)
-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기(80.3)

3. 좋음과 나쁨에 대한 뜻매김

㉠ "좋다"의 낱말 뜻

- **『용비어천가』**: "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 니."

> "둏다"의 뜻: 활짝 피었다 > 무르익음 > 여묾

> '좋은 사람': 그 자신의 본디 가능성을 잘 실현한 사람

- 슬기로운 사람이 얻고자 하는 **"저마다에게 보다 좋은 것"**은 저마다의 가능성을 보다 잘 무르익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, "보다 나은 삶수"는 그 자신이 살아나갈 삶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가능성을 말한다.

㉡ "나쁘다"의 낱말 뜻

- 국어사전을 찾아보면, **"나쁘다"**는 "좋지 않다" 또는 "해롭다" 또는 "옳지 않다" 등으로

[3] 구연상, 「글쓰기와 사무침」, 『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사무침』(채륜, 2009) 살핌.

풀이된다.

> 어원적으로 보자면, "나쁘다"는 **"낮다"**, 즉 **"높지 않다"**를 뜻합니다.

> 나쁨: **어떤 것이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 > "덜 익었다", "설익었다"**

- **나쁨**은 어떤 것이 그 자체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, 즉 갖추었어야 할 무엇인가를 **'못 갖춘 상태'**를 말한다.

> **"담배는 건강에 나쁘다."**

㉢ 좋고 나쁨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.

- "더 좋음"과 "덜 좋음"은 앞서 세워진 잼자에 따라 재어진다. 그 잼자는 사람 자신일 수도 있고, 일이나 관계 등이 될 수도 있다. 물론 '더와 덜'의 관계, 즉 **'좋고 나쁨'은 평가자의 기대치(期待値)에 의해 결정**되기도 한다.

> **온전히 무르익은, 즉 활짝 핀 꽃은 '그 자체로 참 좋은 꽃'**이다. 물론 이러한 꽃도 누군가에게 비염을 일으킨다면 나쁠 수 있다.

> "좋은 것"이 곧 **"참인 것"**이다. 좋음은 무르익음일 뿐 아니라 참이기도 하다. 이때 **"참"**은 **"가득 채워져 있음", 달리 말해, 그 자신**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.

- **"참"**은 "차다"는 말의 명사형

> "차다"의 근본 뜻은 비어 있던 어떤 것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, '참'에는 "차차로 진행되는 과정"이 속한다.(물이 빈 항아리)

> 철: "차서 넘치는 모습". 우리말 "철들다"를 우리는 "참의 넘침"으로 이해하여 "겉으로 드러남" 또는 "마음에 가득 찬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"의 뜻으로 쓸 수 있다.

- **슬기로운 사람**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알맞게 무르익어 갈 줄 알 뿐 아니라,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스스로의 모자람을 끊임없이 채워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. 이와 반대로 덜 된 사람, 설익은 사람, 모자라거나 모난 사람 등은 좋지 않은 사람, 즉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.

㉣ 좋음의 본질

- **어떤 것의 좋음**은 그 자신을 무르익게 해 주고, 그로써 그 자신이 채워나가야 할 본래 모습을 그 자신에게 가득 차게 해 줄 뿐 아니라,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자신의 크기를 더욱 키워준다. > **'큰 사람' 되기 >**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는 사람 > 그는 마음이 맑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볼 줄 알 뿐 아니라, 그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아며,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대해서도 깊이 마음 쓸 줄 안다. 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그어져 있는 경계선들을 허문다.

> 큰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서 모두에게 '저마다 보다 나은 것'을 베풀어 줌으로써 모두를 슬기롭게 한다.

4. 선악의 문제에 대해

㉠ 악의 유래

> **"선의 결여(缺如)":** 악은 좋음(선, 善)이 없는 것과 같거나 또는 좋음이 모자라는 것과 같다!

> **악**을 **'좋지 않음(선의 결여)'으로 설명하는 일**은 악의 문제를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"자유(自由)"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> 칸트: 악이란 **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행위와 관련**해서만 선고되어야지, 우리의 "책임 귀속"을 넘어서는 행위와 사건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.[4]

㉡ 결과로서의 악

-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또는 너무 술이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, 이 **'술 취하미'**가 비록 칸트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았지만, 그 순간 악했다고 할 수 있다.

> 악: **'돌이킬 수 없는' 또는 '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' 몹쓸 짓**을 저질르는 행위

> 돌이킬 수 없는 몹쓸 짓은, 그것이 누군가 스스로가 원해서 저지른 것도, 그리고 그 자신의 정신이 멀쩡했다면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일일지라도, 즉 그의 자유 문제와 상관없이 **악한 짓**이다.(천인공노할 **환경 파괴범, 끔찍한 살인마,** 범죄자로 길러진 아이들, 살인병기로

[4] 강영안, 『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』, 소나무, 2002. 170 쪽 살핌.

훈련된 소년들, 마약에 취해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중독자들)

⇒ 그들은 '악마의 화신'과도 같지만, 그들 또한 이미 악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이다. **악은 오늘날 유령과도 같**다.

㉢ 악에 대한 새로운 뜻매김

- **칸트의 전제에 대한 비판:** 사람에게는 **"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존경심"**과 **"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애"**가 나란히 공존한다. 이때 악인은 그가 어떤 '몹쓸 짓'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하기보다 그가 도덕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악한 셈이다. 악의 유래는 '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법칙을 존경하지 않고 그것을 어기는 데' 놓인다.

- **'몹쓸 짓'은 곧 '도덕법칙 또는 천륜과 같은 것을 어기는 짓'**과 다를 바 없다.

- **악의 유래: '도덕법칙을 어기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것'에 놓여야** 한다.

- **욕망이나 이성(理性)은 그 자체로 악의 유래가 될 수 없다.**

- **악**은 **우리의 선택에 의해 생겨나는 게 아니라, 악으로부터 발생한다.** 악이 악을 부른다.

- 악은 자연 상태에서의 약육강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**문명 세계의 산물**인 셈이다.

-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**악의 홀씨(포자, 胞子)**가 독버섯처럼 이미 퍼져 있다.

- **우리는 모두 제 마음의 임자**이고,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쓰는 대로 길이 나게 마련이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성질이 들어있다면,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.

- **악**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맑히고, 그로써 '저마다에게 보다 나은 것'을 살피고 찾으며, 그것으로써 **스스로를 갈고 닦아 나감으로써만 물리칠 수 있**다.

- **악은 사회적 문제 또는 구조적 문제이다.**

- **우리의 양심이 저마다에게 올바른 명령을 내리기만 하는 한, 우리는 악할 수 없다.**

- **악**은 **자유의 결핍이나 이성의 결핍에서 비롯되기보다 양심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다.**

- **양심은 피곤하다.** > 양심에게 과부하가 걸리도록 하는 것, 즉 양심을 혹사시키는 것이 바로 양심의 처리 능력을 압도하는 **'부당한 욕심'**입니다. **이것이 바로 악의 주범(主犯)**입니다.

- 부당한 욕심= **"악심(惡心)" = '모진 마음'**

-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악심을 맑히지 못한다면, 우리 자신도 악에 희생당할 수 있다.

우리 모두가 '큰 사람'을 이루어 갈 때만 악심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.